

## 현대패션에 표현된 사이키델릭에 관한 연구

박 순 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사이키델릭의 어원적 의미는 그리스어로 정신을 나타내는 사이케(psyche)와 영어로 섬세함을 지칭하는 델리커시(delicacy)의 합성어이다. 또한 환각제의 복용에 따른 환각상태를 뜻하는 LSD로 대표되는 말이기도 하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환각제를 복용하면 통상적인 정신과 감각의 해방감을 맛보게 되고 이것이 확대되면 일종의 환각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LSD 상태에서는 느끼게 되는 감각의 해방과 체험을 사이키델릭이라고 한다. 또한 환각상태에서 만들어진 미술작품을 사이키델릭 아트라고 하며, 1960년대 말 히피족이나 그들이 지지하는 예술가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마약과 유사한 환각상태를 느낄 수 있는, 현란한 문양이나 사운드 등을 통해 초현실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색상이나 사물 그리고 소리들을 극단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또 그렇게 들린다고 한다. 일부 예술가들이 환각상태에서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런 작품들은 사이키델릭조의 독특한 현상을 나타냈고 색상은 현란한 원색과 형광염료가 섞인 자극적인 배색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을 계기로 그래픽, 디스플레이, 패션, 음악, 영상분야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되었다.

사이키델릭에 영향을 받은 패션은 현란한 문양이나 홀치기염 등을 이용하여 사이키델릭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일상적인 감각 영역을 확대시킨 색다른 무늬나 형광성이 강렬한 색 사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풍속을 말한다. 갑자기 인간의 눈을 자극하는 느낌의 형광색이나 극채색 등 무지개와 같은 사이키 컬러를 사용하여 선명한 프린트 무늬를 넣어 구성하는 옷이 사이키 스타일이다. 더불어 헤어스타일은 정돈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헝클어진 채로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환각상태에서의 헤어스타일은 정돈하지 않고 헝클어진 헤어스타일로 현실도피를 상징하였다. 이러한 사이키델릭 패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이키델릭 패션은 60년대 등장한 빛, 소리, 영상을 소재로 한 움직임은 미술인 키네틱아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패션에 있어서 키네틱은 60년대 당시에는 형광염료로 염색된 옷감이나 비닐소재를 사용하여 번쩍번쩍 빛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고 실제로 배터리를 이용해서 열판에 빛이 들어가게 하는 광채를 내기도 했다. 그 특징은 색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니스커트가 터부시된 여성의 무릎을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처럼 의상에서는 그때까지 터부시된 색채를 활용한 것도 충격이었다. 모든 기성의 가치가 하나하나 무너지고 우아한 품위를 자랑하던 패션이 되새되면서 의상에 활용되던 색채의 규칙도 무너졌다. 우아함 대신 발랄함이 자리를 굳혀나가자 자연히 밝고

선명한 색채가 의상의 색채로 떠올랐다. 그 위세가 가히 혁명에 가까워 이것을 피코크 혁명이라고 부른다.

2. 사이키델릭 패션무늬의 특징은 생동감이다. 이는 옵티컬 패턴과 흡사한 점이 많다. 옵티컬이 흑백을 주채로 하는 점에 비해서 사이키델릭은 색으로 표현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한 가지 다른 점은 옵티컬패턴은 규칙적이고 지오메트릭 하지만 사이키델릭 패턴은 불규칙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동적인 느낌 즉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시현상이다. 이 현상은 패션소재에서 무지보다는 무늬 쪽에서 좀더 과격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위에서 말한 색상을 대조적으로 배치시켜 표현하였다. 무늬는 몽상적인 문양을 비롯해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 미묘한 기하학 무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프린트무늬의 경우는 몽상적이거나 추상적인 문양이 주류를 이루고 색상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강렬하며 환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사이키델릭은 환상적인 무늬로써 그 신비감을 증폭시킨다.
3. 색에 초점을 맞춘 사이키델릭 시각을 통해 전달되는 환각적인 느낌은 무늬의 모양보다는 색에 의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색이다. 환각적인 느낌을 주는 무늬가 환각적인 색채로 표현되어 있을 때 사이키델릭의 극치를 체험할 수 있다. 빨간색은 불꽃이나 태양을 암시할 때 빨간색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한다. 흔히 사이키델릭한 색으로 형광이 섞인 자극적인 색채를 지칭하고 있으나 한두 가지 색상만으로 환각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어떠한 색이든 많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개성이 강해서 서로 트러블을 일으키는 컬러로 배색할 때만 환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신체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바디 페인팅이나 원색을 넣은 화려한 무늬의 셔츠 등의 스타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장이 짧은 스킴프 티셔츠는 1960년대 풍의 괄목할 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티셔츠 아이템으로서, 사이키델릭 프린트나 팝 아트 모티프를 수용한 패션적인 디자인이 많다. 당시 이 사이키델릭 경향은 일반인이 상상을 초월해 발가벗은 인체 위에 바디페인팅 해서 그것을 옷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패션에서의 사이키델릭의 경향은 프린트무늬에 반영되는 정도이거나 셋노란, 셋빨강과 같은 형광색상에 반영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사이키델릭을 이용한 의상은 몸에 착 달라붙는 타이즈 타입의 의상이다. 이는 종교예식을 치루거나 할 때 가운데로 많이 입는 의상이며 비밀상적인 느낌이 강한 빅사이즈의 의상과는 대조적이다.

올드 사이키델릭에는 반체제 의식이 있었으나 네오 사이키델릭에서는 그와 같은 사상적인 면은 없고 단지 패션으로서만 취급된다. 패션에서는 1985년 춘하 컬렉션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파리의 프레타포르테에서 티에리 뮈글러나 장 폴 고티에의 작품에서 사이키델릭을 의식한 것들이 눈길을 끌었다. 추동 컬렉션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대되었고 1986년에는 하나의 큰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사이키델릭 패션 모즈(mods)나 히피, 피코크 혁명, 미니룩 등 1960~70년대 거리 패션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감각적인 패션을 총칭하는 경향이 있다. 2000년 이후 새롭게 부각된 네오 사이키델릭의 특색은 아무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와 밝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듯 네오 사이키델릭(neo psychedelic) 패션은 60~70년대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전되어 현대에 다시금 유행되어지므로써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첨단디지털 시대의 컴퓨터그래픽과 어우러지는 레이저 컬러 등 다채로운 색상과 문양 등의 현란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